

영재 자녀를 둔 어머니들의 양육 스트레스 분석: 개념도 기법을 활용하여

한 기 순

이 영 미

인천대학교

인천대학교

본 연구는 개념도 방법을 활용하여 영재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를 실증적으로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영재 자녀를 둔 12명의 어머니들이 지각하고 있는 양육 스트레스에 대한 브레인스토밍 진술문들을 종합하여 최종적으로 79개의 진술문을 도출하였고, 이들 79개의 진술문에 대한 비유사성 평정 자료를 사용하여 다차원 척도분석을 실시한 결과 2차원 개념도 제작에 적합한 .273의 stress 값을 얻었다. 또한 101명의 영재아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도출된 양육 스트레스를 얼마나 공감하고 경험하는가를 물었다. 다차원 척도 분석을 통해 도출된 개별 진술문들의 좌표 값을 이용하여 위계적 군집 분석을 실시한 결과, 범주의 개수는 총 3개로 분류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위계적 군집 분석결과 도출된 군집에 대한 명명은 좌표 상에 표시된 진술문들의 상대적 위치, 범주에 묶인 진술문 내용과 연구 참여자들이 카드분류 단계에서 기술한 범주 명을 고려하여 ‘영재부모로서의 부담과 갈등’, ‘영재성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부정적인 행동 특성’, ‘영재라는 타이틀의 자부심과 그 이면’으로 명명하였다. 영재부모로서의 부담과 갈등 범주가 가장 높은 평균을 보여 이 범주와 관련한 양육스트레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녀의 진로에 대한 어떠한 구체적인 도움을 주어야 하는지 걱정이다($M=4.65$)’, ‘자기주도적인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면서도 불안한 마음에 자녀의 행동에 개입하는 것이 많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게 된다($M=4.60$)’, ‘초등학교 시절에서 영재과정을 마친 후, 다음 단계에서도 영재로 선발되기 위해 뒷받침을 잘 해 주어야 한다는 부담이 있다($M=4.46$)’, ‘시간적, 물질적 투자의 부재로 인하여 자녀가 소질을 더 계발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다($M=4.44$)’, ‘부모의 높은 기대 때문에 자녀에게 부담을 주는 것 같아 미안하다($M=4.43$)’ 등의 항목들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평균을 보여 이와 관련한 영재어머니들의 스트레스를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영재 자녀 및 부모교육과 관련하여 그 시사점이 논의되었다.

주제어: 영재 어머니, 영재 자녀, 양육 스트레스, 개념도 분석

교신저자: 한기순(han@incheon.ac.kr)

*이 연구는 2011년도 인천대학교 교내학술비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습니다.

I. 연구의 필요성

타고난 영재성을 발현시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타고난 재능을 발휘하기 위한 본인 스스로의 부단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며, 그들의 재능을 발견해주고 이끌어줄 교사 역시 중요하다. 하지만 한 개인이 태어나 성장하면서 재능 영역, 수준과 관계없이 그의 성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은 단연 부모이다. 부모에 의해 인간 재능 발달의 선천적, 후천적 요인이 결정되고 부모에 의해 재능의 수준이나 발현 모습이 달라질 수 있다. 부모는 아동에게 있어 최초의 교사이자 영원한 교사로서 한 개인 초기 경험의 질적, 양적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탁월한 재능을 발휘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들의 타고난 재능을 발휘하기까지 본인의 부단한 노력도 필요하지만 그와 더불어 부모의 헌신적인 뒷바라지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 Bloom(1985)의 보고서를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영재성의 발현에 있어 부모의 역할은 너무나도 크고 중요하다. Clark(1997)은 가정을 “영재성의 요람”이라고 칭하였는데, 이는 영재의 초기 판별과 교육이 부모에 의해 이루어짐을 고려한 주장이라고 할 수 있다(박해원, 김윤주, 2009; 조복희, 한유미, 1995). 한 예로, 김정화(2004)는 영재아동의 부모는 일반아동의 부모보다 가정에서만뿐만 아니라 학교에서의 학습에 대한 교육 참여 및 자녀의 교우 관계에서도 더 적극적이라고 지적한다.

자녀를 양육한다는 것은 부모에게 심리적 사회적으로 안정감을 주고 자신의 삶을 반성할 기회를 갖게 하며, 자녀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새로운 흥미와 관심을 갖게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Stratton, 1988). 하지만 현대의 부모들은 자녀양육으로 인한 심리적, 경제적 부담과 가사노동의 증가로 인한 신체적 피로감 등으로 인하여 개인 생활을 가질 만한 여유를 갖지 못하고 이는 정체감 상실의 위기를 초래하기도 한다. 더구나, 영재아를 자녀로 둔 부모는 영재교육에 있어서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재아 부모로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보의 부족으로 힘들어하고 있으며, 실제로 자신의 자녀가 영재성을 지녔다고 확인되었을 때 대다수의 영재아 부모들은 자신들이 영재아 부모로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당황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김정휘, 백영승, 2001; 윤여홍, 2008; 이신동, 2002). Braggett, Ashman과 Noble(1983) 역시 영재 부모들을 조사한 결과, 이들은 크게 3가지 영역(지식과 정보 부족, 학교와 관련된 문제, 심화활동과 관련자료 부족)에서 문제를 겪고 있으며 도움을 필요로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Braggett 등이 지적하는 문제는 Foster(1993), Fouse, Beidelman과 Morrison(1995) 등 다른 영재학자들에 의해서도 공통적으로 지적된 바 있는데, 이들 역시 유사한 맥락에서 영재부모들은 영재성과 영재아에 관한 지식과 정보의 부족 문제, 경직된 학교 교육과정과 학교생활 부적응과 같은 교육제도나 학교정책과 관련된 문제, 영재 자녀를 조력하기 위한 관련 자료나 정보의 부족 문제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실제로 Goertzel과 Goertzel(1962)은 그들의 명저 「세계적 인물들은 어떻게 키워지는가(Cradles of Eminence)」에서 아동기 때 영재로 분류되었던 20세기의 저명인사 400명의 정서적, 지적 환경을 조사하여 소개하고 있는데, 이들 중 60% 이상이 아동기나 청소년기 때 따분한 교육과정, 자신을 이해

못하는 교사, 무시하거나 조롱하는 친구들로 인하여 학교생활 적응에 상당한 어려움을 경험했던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2011년을 기준으로 전국 초중등학생의 1.59%인 111,931명의 학생들이 영재로 선발되어 영재교육을 받고 있다(한국교육개발원 영재교육종합데이터베이스). 모든 부모가 자신의 자녀가 영재로 선발되어 교육받기를 희망하지는 않지만, 상당수의 부모들은 자신의 자녀가 영재이던 그렇지 않던 간에 영재교육에 무한 관심을 보이며 자신의 자녀가 영재로 추천되기를 바라는 마음 또한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렇듯 많은 부모들은 자신의 자녀가 111,931명 중 한명이기를 희망하고 있고, 또한 영재교육이라는 교육적 창구를 통하여 영재라는 인증과 함께 영재학급이나 영재교육원에서의 선발이 자녀의 영재성에 대한 보다 심화된 탐색의 통로를 제공해 주기를 바라고 있지만, 정작 영재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하는가의 문제는 부모에게 적지 않은 스트레스로 작용한다.

자녀의 지적 능력이나 특수 분야의 재능이 뛰어난 경우, 부모로서 자녀를 지도하는 데 있어서 역량에 한계를 느끼게 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일반적으로 영재들은 우수한 언어능력과 추론, 분석력, 집중력, 과제지향성 등을 보이지만, 어떤 영재 자녀들은 부정적인 측면을 수반하기도 한다. 불균형한 지적 발달, 대인 관계 곤란, 흥미가 없는 영역에서의 미성취, 비순응, 극단적 완벽주의, 좌절과 분노, 과도한 경쟁, 우울증 등(민보경, 2010; Delisle, 1992; Silverman, 2002)이 바로 그것이다. 그래서 영재아를 둔 부모는 신체장애나 정신박약아를 둔 부모 못지 않게 많은 노력과 인내가 필요하며 실제로 자신의 직업을 포기하면서까지 헌신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전경원, 2000). 이렇듯 영재아 부모들은 종종 양육 스트레스를 가지게 되는데, 이 스트레스는 부모 자신은 물론 영재 자녀에게까지 많은 영향을 끼친다.

양육 스트레스와 양육 행동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Deater-Deckard(1998)는 아동의 행동문제는 부모의 스트레스를 매개로 양육 행동에 영향을 주게 되고 이러한 부모의 양육 행동은 다시 아동의 문제 행동을 낳게 한다고 보고하였다. Pianta와 Egeland(1990)에 의하면 어머니가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면 아동의 요구에 민감하고 적절하게 반응하는 행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또한,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양육 스트레스를 느끼게 되면 부모의 심리적인 만족감은 물론, 자녀에 대한 태도, 자녀와의 상호작용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한다(안지영, 2000). 따라서,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이는 영재아 부모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강은주, 2003; 민경해, 2006). 실제로 민경해(2006)는 영재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영재아 부모들의 효능감을 높이고, 부모의 양육태도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고한 바 있다.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영재아 부모들의 양육 스트레스를 줄이고, 영재아 자녀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양육에 필요한 기술적 정보 제공을 해 주는 것은 중요하다. 하지만 현재 영재아 부모를 위한 국내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대부분 일회성 특강 형식의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대부분이고, 영재아 부모들의 실제적 요구와 고민들을 반영한 프로그램은 거의 부재한 상황이다(민보경, 2010).

관련하여 영재학생을 자녀로 둔 부모들의 양육 스트레스나 고민에 대한 연구 역시 매우 미비한 상태이다. 현재까지 영재부모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연구들을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연구물들의 대부분은 첫째, 영재학생 어머니의 교육관과 양육태도에 관한 연구(구미숙, 2004; 김동춘, 2003; 박혜원, 김윤주, 2009; 양소희, 2007), 둘째, 영재부모의 성격유형 분석(하종덕, 2008), 셋째, 영재학부모와 일반학부모의 인지, 사회적, 문화적 자본의 비교분석(이영순, 2006), 넷째, 영재학부모의 자질과 양육자로서의 전문적인 특성에 관한 연구(문윤희, 한기순, 2010), 다섯째, 영재부모들의 고민유형에 관한 분석(이희영, 안삼태, 최태진, 2003), 여섯째, 영재아의 부모특성이 영재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분석(김성원, 최성연, 2002), 일곱째, 영재아의 기질과 부모의 양육스트레스, 양육행동, 양육효능감 등의 양육관련 변인들의 관계분석(유형기, 2009), 여덟째, 영재어머니의 심리상태에 관한 투자적 분석(한기순, 태진미, 양태연, 2010), 아홉째, 영재부모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연구(민경해, 2006; 민보경, 2010), 그리고 총체적차원에서 영재부모지원에 관한 연구(태진미, 2009) 등이 있다. 영재아 부모들의 고민유형을 분석하거나(이희영 외, 2003), 양육 스트레스를 일반부모의 스트레스와 비교하여 분석한 연구가 몇몇 있어(강은주, 2003; 유기성, 2009) 영재부모들의 고민이나 스트레스 정도를 이해하는 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되긴 하지만, 제시된 고민유형이 너무 개괄적이거나 구체적이지 않고, 사용한 양육 스트레스 설문이 일반적인 양육 스트레스 내용을 담고 있어서 영재아 부모들이 느끼는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양육관련 고민이나 스트레스를 알아보는 데에는 많은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즉, 영재아와 일반아 부모들이 느끼는 스트레스 요인이 상이할 수 있는데, 일반적인 양육 스트레스 요인을 활용한 잣대로 영재 부모의 스트레스 요인을 측정하는 것은 영재 부모들의 양육관련 스트레스에 적절하고 타당하게 접근하지 못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Silverman(1997)이 30년간에 걸친 영재 부모와의 다양한 상담 경험을 통해 영재 부모가 호소하는 양육의 어려움을 보고한 바 있긴 하나, 이 역시 사회 문화적 배경이 다른 미국의 경우로 우리의 상황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부모들은 다른 나라의 부모들과 비교하여 가히 비교 불가한 교육적 열정을 자녀와 자녀교육에 투입하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나라 영재 부모들이 어떠한 고민과 스트레스를 갖고 있는가를 알아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이렇듯 영재학생을 자녀로 둔 영재 학부모의 고민과 스트레스에 대한 정보가 미비하고 기존의 일반적인 양육 스트레스 척도로는 우리나라 영재아 부모들이 자녀를 양육하면서 느끼게 되는 양육 스트레스를 실질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영재아 부모들의 실제 목소리와 경험을 통하여 그들이 느끼는 스트레스를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개념도 연구법(Concept Mapping)을 활용하였다. 개념도를 통해 본 연구에서 도출되는 영재 부모들의 양육 고민과 스트레스 요인들은 이희영 외(2003)가 제시한 바 있던 영재부모들의 고민유형을 보다 상세하고 실제적인 측면에서 보완할 수 있으며, 유기성(2009)이 일반적인 양육스트레스 척도를 활용하여 제시한 영재부모의 양육스트레스를 영재교육의 맥락에서 구체화하며, 앞서 언급된 Braggett, Ashman과 Noble(1983), 그리고 Silverman(1997) 등의 연구와 비교하여 영재자녀 양육 스트레스에 있어서의 문화적 측면의 차이를 탐

색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개념도 연구법은 영재아 양육 스트레스와 같이 정보가 미비하거나 부족한 초기상태에서 관리자 및 전문가 집단의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을 통하여 주제 및 방향을 이끌어 내고, 이를 단계적으로 구체화하는 구조적 개념화(structured conceptualization)의 특성을 지닌다(Trochim, 1989). 따라서, 개념도 연구법(Concept Mapping)은 질적 연구와 양적 연구의 장점을 보완한 연구방법이다(Kane & Trochim, 2007). 주제와 관련된 사람들이 주제와 관련된 문장을 만들고 그 문장들을 분류하는 활동을 통하여 연구 참여자들의 인식을 탐색한다는 점에서는 질적 연구와 유사하다. 그러나, 연구 참여자들의 관점과 경험 내용들이 연구 절차에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통계적 방법을 사용하는 점은 양적 연구 방법에 속한다. 개념도 연구법(Concept Mapping)은 우리나라에서도 개념도 연구법을 활용한 소수의 연구들(정찬석, 2005; 정찬석, 이은경, 김현주, 2004; 지승희, 박정민, 임영선, 2005)을 통해 기초적 이론이 수립되지 않은 개념이나 대상을 연구하는 데 효율적인 방법인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최근 영재와 관련된 연구에서도 개념도 연구법이 활용된 바 있다(이정용, 2010; 김홍희, 2010). 이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영재를 자녀로 둔 어머니들이 지각하고 있는 양육 스트레스의 개념도는 어떠한가?

둘째, 영재를 자녀로 둔 어머니들이 지각하고 있는 양육 스트레스의 정도는 어떠한가?

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크게 두 그룹으로 구성된다. 우선 개념도 조사를 위한 초점집단(focus group)으로 우선 영재를 자녀로 둔 어머니 12명을 선정하였다. Johnsen 외(2000)는 개념도 제작에 있어 참여집단이 보통 10에서 20명 정도로 구성된다고 하였고, Kane과 Trochim (2006)도 유사하게 단일 개념도 제작에 있어 참여집단은 일반적으로 대부분 10에서 20여명 정도의 참여집단을 사용한다고 보고한 바 있다. 연구의 목적과 방법 및 소요시간을 포함한 구체적인 내용을 공고 후 영재자녀를 둔 어머니들이 갖고 있는 고민이나 스트레스 등과 관련하여 브레인스토밍과 함께 진술문을 작성하게 하였다. 12명의 어머니는 모두 수도권의 한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원을 1년 이상 다닌 영재자녀를 둔 어머니들로 대학부설 영재교육원의 연구를 위한 모집 공지를 통해 참여하게 되었다. 12명 중 전업주부는 8명, 직장에 다니는 어머니는 4명이었다. 또한 참여한 어머니들의 영재 자녀에 관한 성별 및 학년별 정보를 살펴보면 남아가 7명, 여아가 5명이었으며, 4학년 3명, 5학년 4명, 6학년이 5명이었다.

다음으로, 이들 12명의 초점집단 영재아 어머니의 진술문을 토대로 작성된 영재아 양육 고민 및 스트레스 설문에 115명의 영재 어머니가 참여하였다. 115명의 설문 중 무성의하게 작성된 것을 제외하고 101부가 최종 분석에 포함되었다. 101명 영재 어머니들의 자녀 정보를 살펴보면 남아가 58명, 여아가 43명, 학년별로는 4학년 38명, 5학년 33명, 6학년이 30명이었다. 101명의 어머니들 중 52명은 직업이 있고 49명은 전업주부로 파악되었다.

2. 연구 방법

가. 준비단계

영재를 자녀로 둔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개념도 연구 방법을 활용하여 영재 부모가 갖는 양육 스트레스를 탐색하기 위해 초집집단 12명을 선정하고 초집 주제는 ‘영재인 자녀를 키우면서 느끼게 되는 양육 스트레스는 무엇인가?’로 채택하였다.

나. 아이디어 생성

아이디어 생성 단계에서는 본격적인 브레인스토밍이 이루어진다. 브레인스토밍 방법은 그룹 상호작용을 통해 과제에 집중할 수 있고 짧은 시간 내 효율적으로 아이디어를 산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개념도 제작을 위한 아이디어를 산출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Kane & Trochim, 2006). 12명의 어머니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것이 불가하여 10명은 3그룹으로 나누어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2명은 개별 면담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자는 참가자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한 후 브레인스토밍을 실시하였다. “영재인 자녀를 키우면서 느끼게 되는 양육 스트레스는 무엇인가요?”라는 질문과 함께 브레인스토밍을 실시하였으며, 그룹별로 1시간~1시간 30분 정도 소요되었다.

다. 서술문 구조화

12명의 어머니들에게서 얻어진 진술문 중에서 중복된 내용은 제거한 후, 내용을 명료화하여 최종 진술문 79문장을 확정하였다.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얻어진 최종 진술문이 적힌 각각의 인덱스 카드(index card)를 참여자들에게 나누어 준 후, 서로 유사한 개념이라고 생각하는 카드는 같은 것으로 묶는 분류작업(sorting)을 실시하였다. 이 때, 모든 진술문은 둘 이상의 파일로 나누어 분류하고 각각의 문항은 하나의 파일에만 분류될 수 있음을 알려주었다. 분류작업이 다 끝난 다음에는 각각의 파일에 묶인 진술문의 내용을 기초로 하여 각 파일에 가장 부합하는 명칭을 쓰도록 하였다. 진술문을 분류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은 약 30분 정도였다. 이 단계에서 얻어진 진술문 분류 결과는 개념도 분석을 위한 다차원 척도 분석의 자료로 활용되었다.

라. 분석 및 해석

이제까지 과정을 통해 도출된 아이디어들을 쉽게 해독할 수 있도록 돕는 개념지도를 그리기 위해 다차원 척도 분석(multi-dimensional scaling: MDS)과 군집분석(cluste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다차원 척도는 각 진술문들이 지도에서 공간적으로 어디에 위치하는지를 보여주고, 군집분석은 각 점들이 어떤 군집으로 분류되게 되는지를 좀 더 구체화하는 방법이다. 두 분석을 통해 개념들 간의 유사성과 비유사성 등 각 개념 간의 관계가 명확하게 된다(김지영, 2007). 어떤 군집에 포함되어 있는지 두 개의 문장이 한 군집에 포함되어 있을 경우 1점을, 그렇지 않을 경우 0점을 부과하여 총 12개의 유사 행렬(79×79)을 만든 후, 다시 역코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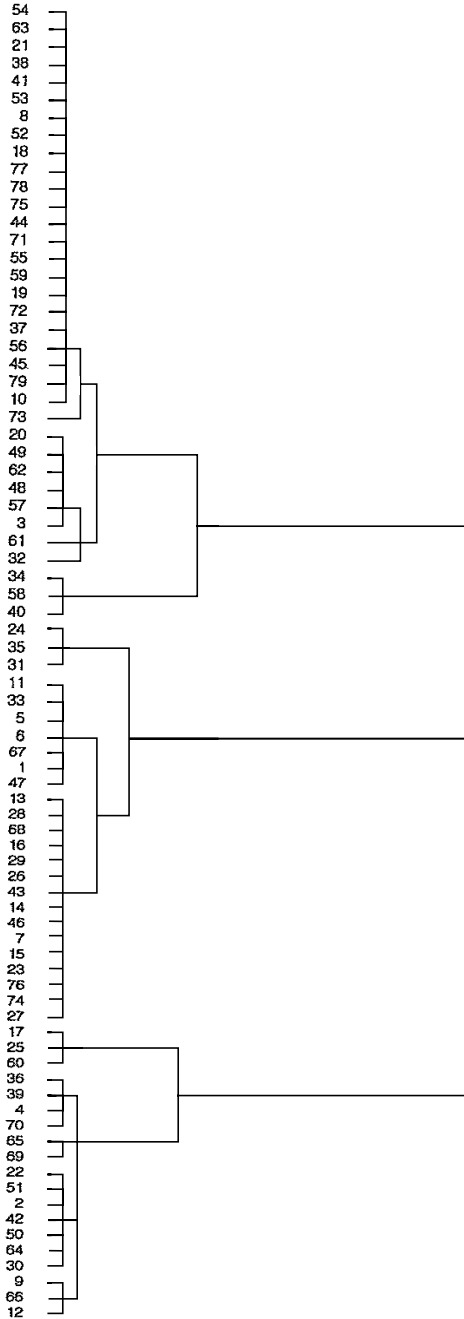
하여 비유사성 자료로 변환한 후 12명의 파일을 합하여 다차원척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후 분석을 통해 얻어진 개념도에 나타난 점들의 범주를 구분하기 위해 다차원척도 분석 결과 나타난 x, y 좌표 값을 분석 자료로 사용하여 위계적 군집 분석(hierarchical cluste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군집의 수는 덴드로그램으로 군집의 수를 결정하였다. 분석결과 나타난 군집에 대한 명명은 좌표 상에 표시된 진술문들의 상대적 위치, 범주에 묶인 진술문 내용에 근거하여 작성하였다. 개념지도(concept map)의 점들로 나타난 진술문들의 관계를 해석한다. 진술문들의 관계는 연구 결과에 제시하였다. 추가적으로, 영재학생을 자녀로 둔 보다 많은 어머니들의 양육 스트레스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포커스 그룹이 진술한 진술문을 바탕으로 만든 설문지를 수도권 지역교육청 지정 영재교육원에 다니는 영재학생의 어머니 115 명에게 배부하였다. 회수된 101부의 설문지를 토대로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설문은 모두 79 항목으로 “매우 그렇다” 5점부터 “매우 그렇지 않다” 1점으로,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영재학생을 자녀로 둔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에 대한 개념도

영재학생을 자녀로 둔 어머니들이 지각하고 있는 양육 스트레스에 대한 브레인스토밍 결과를 종합하여 최종 79개의 진술문을 도출하였고, 이들 79개의 진술문에 대한 비유사성 평정 자료를 사용하여 다차원 척도분석을 실시한 결과 2차원 개념도 제작에 적합한 .273의 stress 값을 얻었다.

본 연구의 결과로 나타난 stress 값은 개념도를 위한 다차원 척도분석에 적합한 평균 범위 (.205 ~ .365)를 충족시킨다(Gol & Cook, 2004; Kane & Trochim, 2006). 그리고 다차원척도법의 모형 적합도 지수(index of fitness)로 신뢰성과 타당성을 알아볼 수 있는 회귀분석의 결정계수와 유사한 RSQ(stress and squared correlation)는 .674로 높은 수준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 다차원 척도 분석을 통해 도출된 개별 진술문들의 좌표 값을 이용하여 위계적 군집 분석을 실시한 결과 [그림 1]과 같이 도출된 덴드로그램 결과를 얻었고 군집의 수는 덴드로그램을 바탕으로 1미만의 거리 값에서 결정하였다. 이 결과 범주의 개수는 총 3개로 분류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추가로 군집 간 진술문과 군집 내 진술문들을 검토하여 군집의 개념적 명료성과 군집들 간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그림 1] 영재학생을 자녀로 둔 어머니들이 지각하고 있는 양육 스트레스의 군집분석에 따른 덴드로그램

연구 참여자들이 유사하게 인식한다고 볼 수 있다.

개념도에 나타난 진술문의 좌표 값을 기초로 위계적 군집분석을 실시한 결과, 영재학생을 자녀로 둔 어머니들이 지각하고 있는 양육 스트레스에 대한 인식은 3개의 범주로 이루어져 있다. 범주명은 같은 군집 진술문들의 의미를 대표하면서 다른 범주들과 차별성을 나타낼 수 있는지를 고려하고, 카드 분류 단계에서 참여자들이 직접 부여한 더미명을 참고하여 결정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도출된 각 범주명은 ‘영재성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부정적인 행동 특성’, ‘영재부모로서의 부담과 갈등’, ‘영재라는 타이틀의 자부심과 그 이면’이다. 영재학생을 자녀로 둔 어머니들이 지각하고 있는 양육 스트레스의 개념도에 나타난 범주들의 위치 및 거리와 진술문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전체적인 인식 구조는 ‘영재부모로서의 부담과 갈등’의 범주와 ‘영재라는 타이틀의 자부심과 그 이면’이라는 범주의 거리는 가까우나 ‘영재성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부정적인 행동 특성’ 범주는 이들과 상대적으로 멀다. 이것은 ‘영재성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부정적인 행동 특성’ 범주는 자녀와 부딪쳐 발생하는 요인이며 ‘영재부모로서의 부담과 갈등’과 ‘영재라는 타이틀의 자부심과 그 이면’ 범주는 부모들이 자녀가 매개가 되어 인식하는 요인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영재라는 타이틀의 자부심과 그 이면’ 범주는 첫째, 자녀의 ‘학교생활’과 관련된 문항들(예, ‘아이가 학교에서 선생님과 마찰이 너무 많아 걱정스럽다’, ‘반 친구들이 너무 잘난 체한다고 받아들이니까 아는 내용도 모르는 척 하는 경우가 있어 안타깝다’ 등), 둘째, 자녀의 ‘영재학급 생활’과 관련된 문항들(예, ‘프로젝트 학습 발표 과정에서 다른 학생의 똑똑하고 당당한 발표 모습과 내용의 난이도에 아이가 상대적으로 위축됨을 느낀다’, ‘주변의 다른 영재아들과 본의 아니게 자꾸 비교하게 된다’, ‘영재아이들 사이에서 다른 아이가 선행된 교육을 받으면 같은 수준으로 가야 한다는 생각에 부담스럽다’ 등), 그리고 셋째, ‘영재를 바라보는 주변의 시선으로 인해 부모가 직접적으로 느끼는 스트레스’와 관련된 문항(예, ‘주변에서 영재 선발에 대한 노하우에 대하여 질문을 하여 부담스럽다’, ‘영재아 엄마들끼리의 고민이야기는 가능하나, 일반 엄마들 앞에서 고민을 이야기할 때는 조심스럽다’, ‘주변에서 질투와 부러움이 느껴져 부담스럽다’ 등)들로 구성되었다.

‘영재성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부정적인 행동 특성’ 범주는 첫째, 영재자녀의 ‘인지적 특성’과 관련된 문항(예, ‘반복되고 엉뚱한 질문에 가끔 짜증이 난다’, ‘영재라는 자신의 능력을 믿고 학교 수업을 소홀히 하는 모습을 보면 안타깝다’, ‘하나에 관심이 쏠리면 다른 것에는 너무 무신경해서 부모로서 힘들다’ 등), 둘째, 영재자녀의 ‘정의적 특성’과 관련된 문항(예, ‘자기만의 주장이 강해서 부모와 부딪힐 때가 많다’, ‘어디에서든 우수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있는 것 같아 안스럽다’, ‘아이가 부모를 가르치려고 할 때가 있어 당황스럽다’, ‘자유로움을 좋아하고, 구속받기를 싫어하는 특성으로 인하여 학원수업을 싫어하여 걱정이다’ 등), 그리고 셋째, ‘신체적 특성’ 관련 문항(예, ‘아이가 하고 싶은 것은 너무 많은데 체력이 받쳐주지를 못해 염려스럽다’, ‘틱증상이 자주 발생하여 걱정스럽다’ 등)으로 구성되었다.

끝으로, ‘영재 부모로서의 부담과 갈등’ 범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영재 부모로서의 부담’과 관련된 문항들(예, ‘초등학교 시절에서 영재과정을 마친 후, 다음 단계에서도 영재로 선발되기 위해 뒷받침을 잘 해 주어야 한다는 부담이 있다’, ‘부모에게 질문을 했는데, 잘 몰라서 대답을 하지 못했을 때 창피하기도 하고 전반적으로 부모도 함께 공부해야 할 필요를 느껴 부담스럽다’, ‘영재이기 때문에 더 공부를 많이 시켜야 한다는 생각에 사교육에 돈이 많이 들어서 힘들다’ 등), 둘째, ‘부모의 욕심’이나 기대로 인하여 받는 스트레스와 관련된 문항(예, ‘자녀가 하고 싶어 하는 영역과 부모의 의견이 달라 염려스럽다’, ‘부모의 높은 기대 때문에 자녀에게 부담을 주는 것 같아 미안하다’, ‘자기주도적인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면서도 불안한 마음에 자녀의 행동에 개입하는 것이 많지는 않은지 생각해보게 된다’ 등), 셋째, ‘교육 및 진로 지도의 어려움’과 관련된 문항(예, ‘아이의 관심과 흥미가 여러 개이고 잘하는 것이 많아 솔직히 어느 것을 시켜야할 지 걱정이다’, ‘과학 또는 수학영재라 그 분야로 발전시키고 싶은데, 꿈은 전혀 아닐 때 진로지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이 된다’, ‘자녀의 진로에 어떠한 구체적인 도움을 주어야 하는지 걱정이다’ 등), 그리고 넷째, 영재 자녀의 뒷받침으로 인해 소외감을 느낄 수 있는 ‘영재가족 내 갈등’과 관련된 문항(예, ‘영재로 선발되지 못한 다른 형제자매를 대할 때 다른 형제자매가 차별을 받는다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주의한다’, ‘자녀들의 학습 관리로 인하여 남편을 약간 소홀히 하는 것 같아 미안하다’ 등)이 포함되었다. 구체적인 범주별 진술문 내용과 본 연구에 참여한 101명의 영재 학부모들이 인식한 각 항목의 스트레스 평균은 <표 1>에 제시하였다.

< 표 1 > 범주별로 본 영재학생을 자녀로 둔 어머니들의 양육 스트레스 진술문 및 문항평균

대범주 (문항수)	소범주	문항 번호	양육 스트레스 진술문	문항 평균
영재아 부모로 서의 부담		5	초등학교 시절 영재과정을 마친 후, 다음 단계에서도 영재로 선발되기 위해 뒷받침을 잘 해 주어야 한다는 부담이 있다.	4.46
		16	부모에게 질문을 했는데, 잘 몰라서 대답을 하지 못했을 때 창피하기도 하고 전반적으로 부모도 함께 공부해야 할 필요를 느껴 부담스럽다.	4.02
		11	영재학급에 선발된 후 프로젝트 학습을 진행할 때, 과정에 함께 참여하고 결론을 도출함에 있어 부모 숙제인 것 같아 부담이 된다.	3.49
		1	영재학급에서 내 주는 과제들을 자녀가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느낀다.	3.30
		23	영재이기 때문에 더 공부를 많이 시켜야 한다는 생각에 사교육에 돈이 많이 들어서 힘들다.	3.18
영재 부모로 서의 부담과 갈등 (25)		29	자기주도적인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면서도 불안한 마음에 자녀의 행동에 개입하는 것이 많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게 된다.	4.60
		28	부모의 높은 기대 때문에 자녀에게 부담을 주는 것 같아 미안하다.	4.43
		67	학습에 대한 선행을 어디까지 해야 하는지 고민스럽다.	4.38
		14	자녀가 스스로 하길 바라는 마음이 크나, 부모로서 더 많은 것을 지원해 줘야하는 건 아닌가 하는 초조함이 늘 있다.	4.29
		68	부모의 기대치가 높아져 있기 때문에 아이와 그 기대치가 만족스럽지 않을 때 예민해진다.	4.22
		26	자녀의 진로 지도 시 진로적성 검사에 바탕을 두어야 하나, 전문직업인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생겨 혼란스럽다.	3.95
		31	자녀가 책을 많이 읽고 싶어하지만, 학원에 다니기 때문에 책 읽을 시간이 부족함을 느낄 때 혼란스럽다.	3.88
		33	영재 수업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선행을 시키는 과정에서 소위 ‘엄마’가 아닌 ‘학부모’가 되어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어 쓸쓸하다.	3.88
		47	선행학습으로 인해 여유롭고 즐거운 주말을 보낼 수 없다.	3.42
		13	자녀가 하고 싶어하는 영역과 부모의 의견이 달라 염려스럽다.	3.17
부모의 욕 심				

대범주 (문항수)	소범주	번호	양육 스트레스 진술문	문항 평균		
영재 부모 로서의 부담과 갈등 (25)	교육 및 진로 지도의 어려움	76	자녀의 진로에 어떠한 구체적인 도움을 주어야 하는지 걱정이다.	4.65		
		15	시간적, 물질적 투자의 부재로 인하여 자녀가 소질을 더 계발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다.	4.44		
		7	자녀에게 더 좋은 정보를 제공하지 못해 미안하다.	4.42		
		24	아이의 사춘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염려스럽다.	4.40		
		74	자녀의 특기를 살리기 위한 멘토를 찾아주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여 미안하다.	4.35		
		35	아이의 관심과 흥미가 여러 개이고 잘하는 것이 많아 솔직히 어느 것을 시켜야 할지 걱정이다.	4.02		
		43	과학 또는 수학영재라 그 분야로 발전시키고 싶은데, 꿈은 전혀 아닐 때 진로지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이 된다.	3.93		
		27	영재아 부모들에게 들려주는 교육 방법이나 방식에 대한 정보가 많아서 어떤 방향이 옳은지 혼란스럽다.	3.82		
		영재 가족 내 갈등		6	영재로 선발되지 못한 다른 형제자매를 대할 때 다른 형제자매가 차별을 받는다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주의한다.	3.88
				46	자녀들의 학습 관리로 인하여 남편을 약간 소홀히 하는 것 같아 미안하다.	3.54
학교 생활		66	영재아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시험을 볼 때마다 점수에 대한 스트레스가 크다.	4.10		
		65	학교교육은 암기위주여서 가정에서도 그런 방식으로 학습을 유도해야하는 상황이 안타깝다.	4.02		
		64	영재아이의 특성을 알고 계신 학교 선생님이 별로 없으셔서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자녀를 볼 때 괴롭다.	3.56		
		30	학교 친구들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걱정된다.	3.50		
		51	학교 친구들이 자녀와 이질감을 느낄 때가 간혹 있다고 하여 걱정스럽다.	3.23		

대범주 (문항수)	소범주	번호	양육 스트레스 진술문	문항 평균
영재라는 타이틀의 자부심과 그 이면	학교 생활	22	자녀 친구들이 엘리트라고 놀리는 듯한 행동을 보면 속상하다.	3.18
		50	반 친구들이 너무 잘난 체 한다고 받아들일까봐 아는 내용도 모르는 척 하거나 수업 시간에 대답도 일부러 안하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있어 안타깝다.	3.12
		9	아이가 학교에서 선생님과 마찰이 너무 많아 걱정스럽다.	2.67
	25	영재아이들 사이에서 다른 아이가 선행된 교육을 받으면 같은 수준으로 가야 한다는 생각에 부담스럽다.	4.05	
	39	영재학급 활동으로 개인 생활의 여유가 적어져 힘들어하는 자녀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깝기는 하나 영재라는 타이틀을 포기하기가 쉽지 않다.	3.92	
	영재학급 생활	12	프로젝트 학습발표 과정에서 다른 학생의 똑똑하고 당당한 발표모습과 내용의 난이도에 상대적으로 위축감을 느낀다.	3.85
		17	주변의 다른 영재아들과 본의 아니게 자꾸 비교하게 된다.	3.65
		70	영재 학급의 교육 과정이 호기심을 자극하는 프로그램이기를 바라는데, 공부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 같아 자녀가 흥미를 잃어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	3.62
	69	영재 학급에 다니면서 너무 머리 좋은 친구들과 같이 있으니까 자녀가 열등감이 생기는 것 같아 걱정스럽다.	3.55	
60	영재학급 수업에 초기에는 흥미를 느꼈는데, 시간이 가면서 흥미를 잃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계속 영재학급을 보내야 하는지 의구심이 생긴다.	3.45		
(19)	주변 시선	36	영재 엄마들끼리의 고민이야기는 가능하나, 일반 엄마들 앞에서 고민을 이야기할 때는 조심스럽다.	4.21
42		주변에서 질투와 부러움이 느껴져 부담스럽다.	3.75	
4		주변에서 영재 선발에 대한 노하우에 대하여 질문을 하여 부담스럽다.	3.40	
2		‘영재가~’, ‘영재인데~’라는 주변의 시선과 선입견이 부담스럽다.	3.33	

대범주 (문항수)	소범주 번호	양육 스트레스 진술문	문항 평균
영재성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부정적인 행동 특성 (35)	77	아이가 책을 읽거나 생각을 하느라 너무 늦게 자는 것이 걱정이다.	4.31
	62	뛰어난 두뇌회전력으로 수학문제를 푸나, 단순한 연산 실수로 문제를 틀리는 모습을 볼 때 화가 난다.	4.24
	18	책에 집중하여 불러도 대답이 없어 답답함을 느낀다.	3.93
	48	어휘력이 뛰어나 자기합리화를 잘 하여 부모로서 당황스럽다.	3.93
	55	하나에 관심이 쏠리면 다른 것에는 너무 무심경해서 부모로서 힘들다.	3.85
	61	내 자녀가 내 생각처럼 영재가 아니거나 영재적 자질과 특성이 부족함을 느낄 때 다소 혼란스럽다.	3.76
	63	자신이 이해되지 않는 문제가 있을 경우 이해가 될 때까지 상대를 괴롭히는 경향이 있어 힘들다.	3.71
	21	느리게 행동하는 경우가 많아 답답하다.	3.71
	19	반복된 계산문제를 지루하게 느끼는 경우가 많아 시간이 많이 걸리는 모습을 볼 때 답답하다.	3.70
	20	생각이 많은지 질문에 쉽게 답을 하지 않아 자녀를 혼내는 경우가 있다.	3.52
3	자녀가 자신이 좋아하는 부분은 스스로 하나, 학업적인 면은 일이 관여해야 한다.	3.50	
8	반복되고 엉뚱한 질문에 가끔 짜증이 난다.	3.45	
57	부모가 하려고 하는 것을 미리 다 알고 있는 듯 하여 원만한 대화가 어렵다.	3.24	
34	영재라는 자신의 능력을 믿고 학교 수업을 소홀히 하는 모습을 보면 안타깝다.	3.12	

대범주 (문항수)	소범주	번호	양육 스트레스 진술문	문항 평균
영재성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부정적인 행동 특성 (35)	정의적 특성	37	쉽게 풀리지 않는 해결 과제가 있을 때, 자기식대로 해결하려는 고집을 보이는 경향이 있어 지도하기 힘들다.	3.94
		44	어디에서든 우수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자녀에게 있는 것 같아 안쓰럽다.	3.92
		53	자신이 관심있는 것에 너무 집중하여 식사시간이 되어도 식탁에 오지 않아 아이와 충돌이 생긴다.	3.89
		79	짧게 공부해도 성적이 오르니 노력하는 자세가 부족하여 불안하다.	3.86
		72	주변정리 등 자녀가 일상적인 생활에서 필요한 것에는 소홀히 하여 불만스럽다.	3.84
		41	자기만의 주장이 강해서 부모와 부딪칠 때가 많다.	3.83
		75	객관적으로 자기가 틀리다고 판단되면 절망하는 경향이 있어 다소 걱정스럽다.	3.69
		49	아이가 부모를 가르치려고 할 때가 있어 당황스럽다.	3.68
		52	자유로움을 좋아하고, 구속받기를 싫어하는 특성으로 인하여 학원수업을 싫어하여 걱정이다.	3.56
		73	자녀가 자기주장이 강하여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버릇없어 보일까봐 걱정스럽다.	3.56
		56	자녀가 자기가 원하는 말만 듣고, 원하는 것만 하여 속상하다.	3.53
		59	자녀가 남에게 못하는 모습을 보이기 싫어하여 한 번 해서 못한 것은 시도를 하지 않아 그것을 하도록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3.51
		38	사춘기가 빨리 오는 듯하고, 사춘기 반발심이 다른 아이들보다 약간 격한 듯하다.	3.44
		54	자녀가 불만이나 스트레스를 가지게 되면 말로 표현하여 풀기 보다는 자신의 감정을 몸으로 많이 표현하여 걱정스럽다.	3.43
		40	교내외에서 받는 수상의 기쁨이나 결과 등에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아 걱정이 된다.	3.39
58	자신이 지적으로 우수하다고 하여 다른 친구들을 무시하는 행동을 하지는 않을까 걱정스럽다.	3.28		
10	아이의 사회성이 너무 부족한 것 같아 염려스럽다.	2.97		

대범주 (문항수)	소범주 번호	양육 스트레스 진술문	문항 평균
신체적 특 성	71	하나에 집중하면 오래하는 경향이 있어 자녀의 눈이 갑자기 많이 나빠져 고민이다.	3.80
	78	다른 아이들에 비해 키가 많이 크지 않아 걱정이다.	3.74
	32	아이가 하고 싶은 것은 너무 많은데 체력이 받쳐주지를 못해 염려스럽다.	3.73
	45	틱증상이 자주 발생하여 걱정스럽다.	1.89

2. 영재학생을 자녀로 둔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정도

영재학생을 자녀로 둔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요인 중에서 ‘영재부모로서의 부담과 갈등’ 범주가 평균 4.00으로 가장 높았으며, ‘영재라는 타이틀의 자부심과 그 이면’이 평균 3.59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영재성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부정적인 행동 특성’ 범주는 평균 3.64로 나타났다(<표 2> 참조). 각 범주별 문항구성과 스트레스 정도는 위의 <표 1>에 제시되었다.

<표 2> 범주별로 본 영재학생을 자녀로 둔 어머니들의 양육 스트레스 정도

구분	문항수	평균	표준편차
영재부모로서의 부담과 갈등	25	4.00	.48
영재라는 타이틀의 자부심과 그 이면	19	3.59	.48
영재성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부정적인 행동 특성	35	3.64	.50

‘영재부모로서의 부담과 갈등’ 요인 중에서 평균이 가장 높은 항목으로는 ‘자녀의 진로에 대한 어떠한 구체적인 도움을 주어야 하는지 걱정이다($M=4.65$)’이며, ‘자기주도적인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면서도 불안한 마음에 자녀의 행동에 개입하는 것이 많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게 된다($M=4.60$)’ ‘초등학교 시절 영재과정을 마친 후, 다음 단계에서도 영재로 선발되기 위해 뒷받침을 잘 해 주어야 한다는 부담이 있다’($M=4.46$), ‘시간적, 물질적 투자의 부재로 인하여 자녀가 소질을 더 계발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다’($M=4.44$), ‘부모의 높은 기대 때문에 자녀에게 부담을 주는 것 같아 미안하다’($M=4.43$) 등의 항목들이 그 뒤를 이었다. 이 영역에서 평균 4.00이 넘는 문항은 25문항 중 13문항으로 많은 영재 어머니들이 이 영역과 관련하여 많은 고민과 스트레스를 공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재성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부정적인 행동 특성’ 요인 중에서 평균이 가장 높은 진술문은 ‘아이가 책을 읽거나 생각을 하느라 너무 늦게 자는 것이 걱정이다’($M=4.31$)이며, 그

다음으로는 ‘뛰어난 두뇌회전으로 수학문제를 풀나, 단순한 연산 실수로 문제를 틀리는 모습을 볼 때 화가 난다’($M=4.24$)였다. 35문항이라는 가장 많은 진술문이 있으나, 평균이 4.00이 넘는 진술문은 단 2문항밖에 없어 상대적으로 이 영역에서의 어머니들의 스트레스가 낮은 걸로 나타났다. 이는 실제로 영재성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인지적, 정의적, 신체적 부정적 행동특성으로 인한 영재부모의 스트레스 정도가 전반적으로 낮은 것이라기보다는, 이 영역의 다양하고 많은 문항수(35문항)에서도 나타나듯이 그 행동특성들이 다른 두 범주의 항목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개별적으로 나타나는 데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즉, ‘아이의 사회성이 너무 부족한 것 같아 염려스럽다’ ‘자녀가 자기주장이 강하여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버릇없어 보일까봐 걱정스럽다’ ‘짧게 공부해도 성적이 오르니 노력하는 자세가 부족하여 불안하다’ 등의 항목 등은 많은 영재아동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성이라기보다는 몇몇 개별 영재아동들에게서 개별적이고 특수하게 나타나는 행동특성이기 때문에 이 범주 항목의 스트레스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해석된다.

‘영재라는 타이틀의 자부심과 그 이면’ 요인 중에서는 ‘영재 엄마들끼리의 고민이야기는 가능하나, 일반 엄마들 앞에서는 고민을 이야기할 때 조심스럽다($M=4.21$)’, ‘영재아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시험을 볼 때마다 점수에 대한 스트레스가 크다($M=4.10$)’, ‘영재아이들 사이에서 다른 아이가 선행된 교육을 받으면 같은 수준으로 가야 한다는 생각에 부담스럽다($M=4.05$)’, ‘학교교육은 암기위주여서 가정에서도 그런 방식으로 학습을 유도해야 하는 상황이 안타깝다’($M=4.02$) 등의 문항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평균을 보였다.

IV. 논의 및 제언

본 연구는 영재를 자녀로 둔 어머니의 양육 고민과 스트레스를 개념도 연구 방법을 활용하여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그 결과가 가지는 의미를 논의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영재학생을 자녀로 둔 어머니들이 인식하는 양육 스트레스는 영재부모로서의 부담과 갈등($M=4.00$), 영재성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부정적인 행동 특성($M=3.64$), 영재라는 타이틀의 자부심과 그 이면($M=3.59$) 순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어머니들이 가정에서 영재로 선발된 자녀가 자신의 진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 주는 것에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음을 시사한다. 부모의 교육에 대한 열정과 정보와 경제적 뒷받침이 자녀의 학업적 성취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즘, 어머니들은 영재로 선발된 자녀를 어떻게 적절하게 뒷받침해 주어야 하는가와 관련하여 많은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은 영재로 선발된 자녀들에게 상당히 높은 기대를 하고 있고 이것이 자녀에게 부담으로 작용할까를 두려워하는 동시에 아이가 자신의 높은 기대치에 부응하기를 희망하는 모순적인 상황도 나타나고 있었다.

둘째, 본 연구의 결과는 6개 영역(영재판별 요인, 개인특성 요인, 학교 요인, 전문교육기관 요인, 사회인식 요인, 가정교육 요인)에서 영재부모의 고민을 분류한 이희영 외(2003)의 연

구와 유사한 결과를 도출하였다. 다만 이희영 외(2003)는 각각의 유형과 관련하여 17개의 세부 항목만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 연구에서는 이희영의 6개 영역을 아우르는 3개의 군집 하에 10개의 소범주와 79개의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양육 스트레스 관련 진술문을 도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셋째, 이 연구에서 도출된 몇몇 진술문들은 영재들의 학교생활이 다소 우려스러울 수 있음을 시사한다. 영재 어머니들은 자신의 영재 자녀가 학교에서 선생님과 마찰이 잦고, 친구들이 자녀를 영재라고 놀리고 또 이로 인해 친구들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다는 진술문을 도출하고 있다. 일찍이 Terman이 주장했듯이 일반적으로 영재들은 학교에 적응도 잘하고 교우관계도 원만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본 연구는 영재들의 사회성이 학교생활에서 심각한 이슈가 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비록 이러한 항목들에 대한 평균값은 그리 높지 않고 소수 학생들의 문제일지라도 최근 왕따 등의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러한 영재들의 사회적 소외나 부적응 문제는 교사와 부모들의 많은 관심이 요구되는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넷째, 본 연구의 결과와 Silverman(1997)의 연구 결과를 비교해 보면 한국 영재어머니들과 미국 영재어머니들이 인식하는 양육스트레스에서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영재부모로서의 부담과 갈등, 자녀의 부적응적 완벽주의 등 영재성으로 인해 나타나는 부정적 특성, 영재성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유사하나, 영재라는 타이틀에 대한 자부심과 그 어떤 범주에서 나타난 영재아와 영재아 부모에 대한 사회적 편견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Silverman의 연구 결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내용들이었다. 본 연구는 또한 Braggett, Ashman과 Noble(1983)의 연구결과, 즉 영재부모들이 크게 3가지 영역(지식과 정보 부족, 학교와 관련된 문제, 심화활동과 관련자료 부족)에서 문제를 겪고 있으며 도움을 필요로 한다고 지적한 것과도 일부분 유사하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부모들이 영재부모로서의 부담이나 갈등, 영재가족 내의 갈등, 영재학급 내에서의 갈등, 주변의 시선 등과 관련한 스트레스를 제기하여 영재라는 라벨이 주는 의미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부모들이 보다 더 많이 의식하고 이를 더 큰 부담으로 여기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결과는 각 문화마다 영재 자녀를 양육하는 스트레스도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비교문화적 관점에서의 후속 연구가 흥미로울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또한 Freeman(2010)이 지적한 바 가정에서 부모가 영재라는 라벨을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 이러한 것이 영재자녀들에게 심리적 정서적 부담으로 작용하여 이들의 성취와 성공에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어 위험하다는 경고와도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다섯째, 본 연구에서 도출된 영재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의 세 범주와 하위 항목들이 실제 영재학부모 대상 교육 프로그램 운영 시 부모교육의 구체적인 방향설정과 내용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이 연구는 시사하고 있으며 동시에 이것이 이 연구의 가장 큰 의의라고 평가된다. 기존의 영재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연수들이 실제 부모들이 인식하는 요구나 당면 문제 해결에 치중하기 보다는 영재교육과 영재의 특성에 대하여 너무나 일반적이고 보편적으로 접근하는 경향성으로 학부모들의 호응을 이끌어내는 데 다소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어 왔

다(민경해, 2006). 따라서 기존의 선행연구들은(민보경, 2010) 영재아 부모들의 스트레스나 요구들에 대한 현상에서의 요구조사가 필요하며 이러한 실질적인 내용들을 반영하여 보다 수요자의 요구와 필요에 근거한 영재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는 영재 부모로서 인식하는 부담과 갈등요인이 무엇인지, 영재성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부정적인 행동 특성은 무엇인가 등등에 관해 실제 영재부모들이 겪고 있는 문제나 스트레스 요인들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수요자의 요구에 맞춤형으로 접근하는 영재부모 연수나 교육이 가능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여섯째, 이 연구에서 ‘영재성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부정적인 행동 특성’ 요인이 가장 많은 문항수 (35문항)를 나타냈으나 부모들의 관련한 스트레스 정도는 상대적으로 낮았던 결과는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이 범주에 속하는 행동특성들이 다른 두 범주의 항목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개별적으로 나타나는 데에서 기인한다. 즉, 여기에 속한 항목들은 많은 영재아동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성이라기보다는 몇몇 개별 영재아동들에게서 개별적이고 특수하게 나타나는 행동특성이라고 볼 수 있다. 실제로 많은 영재학자들은 'One size does not fit all' 이라고 언급하면서 개개 영재들의 특성이 너무나 다양하고 개별적이기 때문에 영재라는 라벨이나 테두리 안에서 영재의 특성이나 이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들을 과잉 일반화하는 것이 매우 위험하고 효과적이지 않음을 주장하고 있는데, 본 연구의 결과는 학자들의 이러한 주장을 더욱 공고히 뒷받침해준다고 볼 수 있다.

일곱째, 본 연구에서는 자녀의 성별에 따른 양육스트레스를 살펴보지는 않았는데 신숙재(1997), 양미선(2000) 등 선행연구들은 남학생의 부모가 자녀의 까다로운 기질과 학습기대로 인해 여학생의 부모보다 스트레스를 더 많이 느낀다고 보고하고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영재 부모가 인식하는 양육스트레스가 성별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보고 영재 학부모 교육 시 성별에 따른 행동 특성 및 대처 방안과 관련된 내용을 선정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끝으로, 영재학생을 자녀로 둔 어머니들의 양육 스트레스를 이해하고 또한 해소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보다 많은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초등학교 수학·과학 영재아 어머니를 대상으로 그들의 양육 스트레스를 연구하였으나, 영재 어머니들이 인식하는 양육스트레스는 발달단계나 학문영역에 따라 상이할 수 있다. 따라서 중학교와 고등학교 영재아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 언어나 예술 등 다른 영역의 영재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영재 어머니들이 겪는 양육 스트레스 요인에 대한 탐색도 필요하다. 관련하여 이 연구에서는 개념도 분석을 위한 초점집단으로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원에 자녀를 보내고 있는 어머니만을 그 대상으로 하였는데, 단위학교 영재학급이나 영재학교의 영재부모들은 이들과 질적으로 차별화된 고민과 스트레스를 호소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영재성의 수준을 고려한 표집이 요구된다. 또한 이 연구는 영재 어머니들이 인식하는 양육 스트레스에 집중하고 있으나, 영재 아버지들이 겪는 스트레스 요인은 어머니들의 것과는 차별화되는 요인일 수 있음을 직시하고 후속연구가 수행된다면 흥미로운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기존의 영재부모의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들은 일반

적인 양육스트레스 척도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영재 부모들의 양육스트레스 요인을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탐색하는 데 많은 한계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측면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개념도 기법을 통해 영재 어머니들의 양육스트레스 요인을 도출하고자 했다. 후속연구를 통해 영재 부모들의 양육스트레스를 보다 신뢰롭고 타당하게 측정할 수 있는 영재 부모 양육스트레스 척도가 개발된다면 영재 부모들이 인식하는 스트레스 요인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가 보다 활발하고 의미있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참 고 문 헌

- 강은주 (2003). **초등학교 영재아동 및 일반아동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 구미숙 (2004). **영재유아 어머니와 일반유아 어머니의 양육태도 비교**. 석사학위논문. 충남대학교.
- 김동춘 (2003). **영재유아와 일반유아의 어머니 양육태도 비교**. 석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 김성원, 최성연 (2002). 영재아의 부모특성이 영재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한국과학교육학회지**, 22(3), 671-681.
- 김정화 (2004). **부모의 교육참여와 자녀의 영재성과의 관계 연구**. 박사학위논문. 충남대학교.
- 김정휘, 백영승 (2001). 영재자녀는 부모가 만든다. **교육연구** 18, 61-109.
- 문윤희, 한기순 (2010). 창조적 성취자를 키운 동서양 양육자의 특성비교. **영재교육연구**, 20(2), 395-426.
- 민경혜 (2006). **영재 자녀 학부모를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효과**. 석사학위논문. 인천대학교.
- 민보경 (2010). **중학교 과학 영재아 부모들의 요구에 기초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박혜원, 김윤주 (2009). 영재아동과 일반아동 부모의 양육특성. **영재교육연구**, 19(3), 433-456.
- 신숙재 (1997).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사회적 지원과 부모 효능감이 양육 행동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 안지영 (2000). **2-3세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 신념, 효능감 및 스트레스가 양육 행동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양미선 (2000).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산후 우울증과 양육 스트레스와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 양소희 (2007). **영재교육기관과 일반교육기관 아동 어머니의 교육관과 양육태도 및 영재인식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강남대학교.
- 유기성 (2009). **영재아의 기질과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 양육행동, 양육 효능감의 관계 분**

석. 석사학위논문. 인천대학교.

- 윤여홍 (2008). 영재자녀와 부모와의 관계패턴. **영재아이**, 8, 22-23.
- 이신동 (2002). 영재와 평재 부모의 배경과 양육특성 비교. **영재와 영재교육**, 1(2), 29-45.
- 이영순 (2006). **영재학부모와 일반학부모의 인적, 사회적, 문화적 자본의 비교**. 석사학위논문. 인천대학교.
- 이정용 (2010). **영재판별에서 관찰-추천 시스템의 방향 탐색: 개념도 연구법을 활용하여**. 석사학위논문. 인천대학교.
- 이희영, 안삼태, 최태진 (2003). 영재아 부모들의 고민 유형 분석. **수산해양교육연구**, 15(2), 193-205.
- 전경원 (2000). **영재교육학**. 서울: 학문사.
- 정찬석 (2005). **청소년 내담자가 지각한 상담의 도움 측면 탐색 연구**.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 정찬석, 이은경, 김현주 (2004). 청소년 내담자가 지각하는 상담의 도움경험 분석: 개념도 연구법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6(1), 21-35.
- 조복희, 한유미 (1995). 영재의 발달특성과 어머니의 양육특성. **대한가정학회지**, 33(2), 89-101.
- 지승희, 박정민, 임영선 (2005). 인턴상담원이 지각하는 개인상담 수퍼비전에서의 도움 및 아쉬운 경험.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1), 75-90.
- 태진미 (2009). 영재부모지원의 새로운 접근. **영재교육연구**, 19(2), 303-332.
- 하종덕 (2008). 영재아 부모의 성격유형과 양육태도에 대한 연구. **영재교육연구**, 18(2), 293-311.
- 한기순, 태진미, 양태연 (2010). 영재 어머니의 심리상태 관찰을 위한 투사적 접근. **영재와 영재교육**, 9(1), 5-26.
- Bloom, B. (1985). *Developing Talent in Young people*. New York: Ballantine.
- Braggett, E. J., Ashman, A., & Noble, J. (1983). The expressed needs of parents of gifted children. *Gifted Education International*, 1, 80-84.
- Clark, B. (1997). *Growing up gifted*. Upper Saddle River, NJ: Prentice Hall.
- Deater-Deckard, K. (1998). Parenting stress and child adjustment: Some old hypotheses and new Questions. *Clinical Psychology: Science and Practice*, 5, 314-332.
- Delisle, J. R. (1992). *Guiding the social and emotional development of gifted youth*. New York: Longman.
- Foster, S. M. (1993). Meeting the needs of gifted and talented preschoolers. *Children Today*, 22(3), 28-31.
- Fouse, B., Beidelman, V., & Morrison, J. (1995). Keeping peace with parents of the gifted. *Gifted Child Today*, 18, 39-41.
- Freeman, J. (2010). *Gifted lives: What happens when gifted children grow up*. New York:

Routledge.

- Goertzel, V., & Goertzel, M. G. (1962). *Cradles of eminence*. Boston: Little Brown & Co.
- Gol, A. R., & Cook, S. W. (2004). Exploring the underlying dimensions of coping: A concept mapping approach.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23*, 155-171.
- Johnsen, J. A., Biegel, D. E., & Shafran, R. (2000). Concept mapping in mental health: Uses and adaptations. *Evaluation and Program Planning, 23*, 67-75.
- Kane, M., & Trochim, W. M. (2006). *Concept mapping for planning and evaluation*. California: Sage.
- Pianta, R. C., & Egeland, B. (1990). Life stress and parenting outcomes in a disadvantaged sample: Result of the mother-child interaction project.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19*, 329-336.
- Silverman, L. K. (1997). Family counseling with the gifted. In Colangelo, N., & Davis, G. A. (Eds.), *Handbook of gifted education* (2nd ed., pp. 307-320). Boston: Ally & Bacon.
- Silverman, L. K. (2002). Asynchronous development. In M. Neihart, S. M. Reis, N. M. Robinson, & S. M. Moon (Eds.), *Social and emotional development of gifted children: What do we know?* (pp. 145-153). Washington. DC: National Association for Gifted Children.
- Stratton, C. W. (1988). Mothers's and Fathers' Perception of Child Deviance: Roles of Parent and Child Behaviors and Parent Adjustment.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6*(6), 909-915.
- Trochim, W. M. (1989). An Introduction to Concept Mapping for Planning and Evaluation. *Evaluation and Program Planning, 12*, 1-16.

= Abstract =

What Kinds of Rearing Stress Do the Mothers of the Gifted Have?: Using a Concept Mapping Approach

Ki-Soon Han

University of Incheon

Young-Mi Lee

University of Incheon

This research investigates gifted students' mothers' rearing stress based on the concept mapping method. For this, 12 gifted students' mothers solicited, gathered and analyzed related statements, and then did multidimensional scaling and hierarchical cluster analysis. The stress value was .273 which was appropriate for the two level concept mapping study. In addition 101 mothers of gifted students rated for the rearing stresses they experienc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79 concrete statements were solicited and as a result of concept mapping were categorized as 'burden and conflict as mothers of the gifted', 'possible negative characteristics due to the giftedness', and 'self-esteem and pressure by the title of the gifted'. Especially following items showed relatively high average: worrying about how to give the child a specific help for his/her career($M=4.65$); worrying that she might be intervening too much in their child's behaviors($M=4.60$); getting pressured supporting the child to get involved in the gifted education system continually($M=4.46$); worrying if her child is not developing his/her talent enough due to the lack of time and money($M=4.44$); being concerned that her high expectations might be putting her child under too much pressure ($M=4.43$). Implications of the study related to gifted education practices were discussed.

Key Words: Mothers of the gifted, Gifted children, Rearing stress, Concept mapping

1차 원고접수: 2012년 11월 16일

수정원고접수: 2012년 12월 22일

최종게재결정: 2012년 12월 22일